허파에 바람 든 선민

(호세아 12:1~14)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2.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벧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허파에 바람 든 선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허파에 바람 든 선민'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는 것은 실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웃어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떠서 한군데에 붙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지 아까부터 자꾸 실없이 웃는다, 여자아이들이 연방 웃어대는 것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떠 실없이 행동하는 것을 가리킬 때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걸 보니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보구나,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다니 네가 허파에 바람이 들었구나."라고 쓰입니다. 마음이 들떠서 행동이 실없고 단정하지 못한 뜻으로 쓸 수 있겠지만 핵심은 실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과 이유가 없는데 행동하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김 과장이 자꾸 웃습니다. 박 부장이 "김 과장,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라고 물었더니 "괜히 웃음이 나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박 부장이 "이런 실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하며 넘어갑니다. 이렇게 실없는 사람을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하지 못해서 괜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나 행동에 납득할만한 이유와 동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없다는 말에서 열매 실(實)자를 사용합니다. 성실(性實), 현실(現實), 실제(實題), 과실(果實) 등에 열매 실자가 들어있습니다. 열매 실자를 보면 갓머리(宀) 부를 가지고 있는데 집을 의미

합니다. 그 밑에 꿸 관(貫)자가 있고, 관자에는 조개 패(貝)자가 있는데 엽전 꾸러미를 줄로 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집 가(宀) 밭 전(田) 조개 패(貝)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 실(實)자는 집이 있고 밭도 있고 밭에서 나온 곡식들을 팔아서 재물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한 농부가 웃고 있기에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남은 곡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농부가 웃는 이유를 납득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농부가 또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농사가 잘 되었거니 했는데 농사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으니 실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돈이 많은 것이 실(實)입니다. 그런데 밭도 없고 돈도 없는데 웃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울어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반대입니다. 집이 있고 밭에서 나온 곡식들을 내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번 상태가 실(實)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실(實)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고 웃는 사람이야 말로 실(實)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벌지 못한 채 돈 벌었다고 웃고 있으니 실(實)없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실(實)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느라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실(實)없는 행동이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분주했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써 열매 맺는 모습이겠지만 교회 일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가지기에 소홀했다면 실(實)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행동에 대해 만족하여 웃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實)없이 행동하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행동하는 선민들을 질색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실(實)없이 웃고 실(實)없이 움직이려 하고 실(實)과 아무 연관도 없는 말을 합니다. 실(實)없다는 말이 공허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처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는 것도 공허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직설적으로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 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선민들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애굽에 보내다’라는 것은 북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속국과 같이 되었음이 드러납

니다. 또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 간 상태가 북 왕국 이스라엘이나 남 왕국 유다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람은 속이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매 실(實)자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민이 진짜 열매, 진짜 결과, 참된 내용이 없는 실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이 이 바람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닌 것들을 기쁨으로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문제는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우상숭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대신 풍요와 다산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실(實)없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을 먹는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이 어떻게 실(實)이 되겠으며 웃음의 이유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실(實)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글자가 만들어진 과정이 구약성경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과 밭이 있고 많은 곡식이 추수되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실(實)이었습니다. 이게 웃을 이유와 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실(實)과 연관되어서 웃으면 실(實)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울면 실(實)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지고 나자 이것도 실(實)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민은 진짜 실(實)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을 계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웃음을 웃으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것이고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이 바람이고 실(實)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2월에서 6월에 걸쳐 동풍이 분다고 합니다. 아바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시작된 모래바람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이 열풍은 한 번 불기 시작하면 50일 가량이나 지속합니다. 50을 뜻하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캄신'이라고 하는데 동풍을 부르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에는 사람이든 작물이든 동물이든 무사할 수가 없었고 지중해에 있는 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선민들이 이러한 동풍을 따르는 것처럼 황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섬기기를 잊고 열심히 일해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모든 것을 말려 죽이는 동풍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돈을 쥐는듯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하게 된 북 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과 앗수르와의 동맹은 선민들이 추구하게 되었던 풍요와 다산을 확보했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풍요와 다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實)없는 가치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고 돈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돈도 권력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실(實)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실(實)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實)없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나섭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동풍은 생명을 말려 죽이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실(實)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를 선도한다고 여겨지는 재벌들이나 기업들도 실은 동풍을 쫓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한 순간에 돈이 몇 천억씩 움직이는 것이 대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천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보시기에는 실(實)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나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실(實)되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그로인해 생겨난 수입을 사용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일한 실(實)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채로 실(實)없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다 동풍을 따르는 것이고 바람을 먹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풍을 따른 결과로 거짓과 포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학은 무엇인가를 탈취하기 위해 타인을 강압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실(實)되시는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을 통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실(實)로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 되고 하는 행동마다 포학이 됩니다. 행여 이로 인해 웃어도 거짓 웃음이고 울어도 거짓 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보는 선민들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웃어도 실없고, 울어도 실없고, 말해도 실없고, 행동해도 실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먹고 생명을 말려 죽이는 동풍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원인을 생각해보니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3~4절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벧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물론 아기였던 야곱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선이 되고자 하는 유전적 형질이 선민에게 들어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될 선민들이 세상적인 장자의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약속으로 정해진 실(實)을 말합니다. 그러한 복을 모태에서부터 추구하는 원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에게 간구하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는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으로 볼 수 없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씨름을 모범적인 기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의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결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께 지느냐의 경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네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한 뒤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실(實)없는 삶을 살 것을 고집했음을 의미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랐고 세상 사람들이 실(實)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실(實)로 바꾸라는 것이었고 야곱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실(實)을 놓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이 세상을 놓기를 바라셨고 야곱은 세상을 놓지 않겠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비로소 세상을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얍복 강가에서 천사와 겨룬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세상을 선택하려는 선민의 끈질긴 기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은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야곱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씨름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선민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통일왕국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시대 전체에 걸쳐서 선민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

민들이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풍요와 다산은 열매 실(實)자가 가리키는 참 내용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실(實)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상태를 바위처럼 굳건하게 지켜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한 집착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결국 선민들은 돌이키지 않았음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멸망당한 선민들처럼 허파에 바람 든 삶을 지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 벌었다고 웃고 돈 못 벌었다고 우는 것은 실(實)없는 사람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실없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죽고 진짜 실(實)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또한 본연의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자 하는 기질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실없이 웃지 말고 실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이 세상 가치를 얻고야 말겠다는 마음가짐이 실(實)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실(實)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을 가져서 하나님 부자가 되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허파에 바람 든 삶을 온전히 중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없이 웃고 울고 돌아다니고 생각하며 말하는 삶은 이제까지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 십자가를 통해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유일한 실(實)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